# 日토다이지, '슈니에 법회' 생중계 나서

###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다수밀집 막기 위해서

박영빈 객원기자


슈니에 법회 도량인 니가츠도(二月堂)의 난간을 질주하는 횃불들. 사진출처=NHK

120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아 '불퇴의 행법'이라 불리는 나라 토다이지(東大寺)의 슈니에(修二会)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예년과 다름없이 봉행됐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와 불특정 다수의 밀집을 막기 위해 항례와는 다른 방식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TV와 인터넷 생중계 등으로 진행된 올해의 슈니에를 3월 14일 'NHK', '마이니치 신문' 등의 주요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슈니에 법회는 11면관세음보살을 본존으로 모시고 보름간 예참과 공양을 올리는 기도법회다. 수행과 학덕이 뛰어난 11명의 스님을 엄선하여 매일 6차례 법당을 요잡하며 참법(懺法)을 독송한다. 또 악업을 참회한 공덕을 나라를 위해 회향해, 한 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하는 법회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기도이기에 매년 봄 일본 각지의 사찰에서 봉행되고 있다.

그중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슈니에이자 가장 유명한 슈니에 법회가 바로 토다이지의 법회다. 기록상으론 토다이지 대불을 조성하고 점안한 752년, 일본왕실의 발원으로 첫 봉행됐다. 이후 매년 음력 1월을 기점으로 봉행해 오고 있다.

특히 토다이지의 슈니에에서 유명한 행사는 불전에 올릴 공양수를 긷는 의례와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커다란 대나무 횃불을 들고 니가츠도의 난간을 질주하는 행사가 유명하다.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똥이나 재를 맞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횃불을 보기 위해 연간 약 3만 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상황 속에, 토다이지는 지난 가을부터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나라 현립대학병원 감염병센터와 협동 대책반을 구성, 슈니에에 참석하는 모든 대중 스님들은 입재 전후로 2주간 자가격리와 함께 PCR검사를 실시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공양수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토다이지 측은 그 어떤 행사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횃불행사에 있어서는 특별히 TV와 인터넷을 통해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했다. 특히 NHK측은 특별홈페이지와 프로그램을 제작, 슈니에의 전 과정을 생중계했다. NHK와 토다이지 측은 "여태껏 다큐멘터리 등으로 의식의 일부를 공개하거나 내부적으로 촬영을 한 적은 있으나 모든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하는 것은 사상최초"라고 밝혔다. 촬영팀의 일부는 방역을 위해 대중 스님들과 함께 자가격리와 PCR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했다. 격리 촬영팀은 생중계 외에 진행되는 법당 내부의 상황과 이야기를 홈페이지를 통해 글과 사진으로 공개했다.

중계프로그램은 횃불행사가 시작된 13일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해 익일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게스트로 자리한 유명 소설가 유메마쿠라 바쿠는 "토다이지의 슈니에라고 하면 나라시대에 대륙에서 전해져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전해지는 유일한 법회다. 당시 실크로드 위에 있던 다양한 종교와 문화, 의식, 음악이 어우러진 법회를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라고 전했다.

함께 게스트로 참가한 아티스트 콤아이도 "세계 각지의 종교의례와 음악, 무용을 보아 왔지만 1200년이 넘는 의례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 감동적이다. 음악적으로도 슈니에의 염불과 여러 법구들의 연주들이 매우 독특하고 강렬하게 다가왔다"며 감동을 나타냈다.

# 英, 불교사원 인근 사격장 건설

### 사원과 영국 불교계 반대에 나서

스코틀랜드 덤프리스 지역 삼예링(Samye-Ling)사원 인근에 군사 사격장 건설계획이 발표되어 사원 관계자들이 반대에 나섰다. 지난 3월 14일 영국 언론사 '가디언'과 '데일리 메일'은 삼예링 사원의 군사 사격장 건설 반대 운동을 보도했다.

삼예링 사원은 영국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지던 시기에 세워진 초창기의 불교사원으로 티베트 불교 카규파(Kagyupa)에 소속되어 있다. 서유럽권의 최대 불교사원으로 꼽히는 이곳은 현재 약 60여 명의 사부대중이 상주하며 수행정진 중이다. 또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전 세계의 불자들이 안거와 참배를 위해 방문하는 도량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올해 영국 정부는 삼예링 사원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 사격장 건설 계획을 발표해 삼예링 사원이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히 사격장이 사원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건설될 계획이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삼예링 사원은 계획발표와 동시에 "사격장의 사격 소음은 도량의 수행정진에 방해를 주며, 주변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반대에 나섰다. 또한 영국 불교계와 시민들에게 사격장 건설 반대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예링 주지 예셰 린포체는 "삼예링은 50년 이상 이곳에서 머물며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종교를 떠나 수많은 이들의 순례지가 되어 왔다. 또한 사원에서 보살피는 크고 작은 수많은 야생동물들도 있다. 사부대중들의 보살핌으로 동물들은 평화로운 안식처로 여긴다. 사람과 동물 모두 평화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격장이 건설된다면 그 소음과 혹시 모를 사고로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동물이 다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삼예링 관계자는 "전 세계 순례자들을 위한 성지이자 배움의 장인 삼예링은 수천 명의 불자가 방문한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평화와 화합의 안식처는 두 개의 사격장 사이에서 사격 소음에 고통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소음보다 훨씬 큰 문제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과 평화의 장소에 일어나는 부적절한 군국주의적 개발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불자들과 지역주민 모두는 이 사격장 건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 세계의 지지자들도 함께 한다"고 전하며 대중들에게 청원서 마감일전까지 지방 당국에 이의를 제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日히에이잔, 1200년 만에 '계단원' 일반공개

### 일본천태종 종조인 사이쵸대사 원적 1200주기 기념 행사 일환


특별 공개되는 히에이잔 계단원.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延暦寺)가 종조인 사이쵸(最澄)대사의 원적 1200주기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산내 중요 전각인 계단원(戒壇院)을 최초로 일반 공개한다고 밝혀 화제다. 이 소식을 3월 14일 '요미우리 신문'이 특별 보도했다.

엔랴쿠지의 동탑(東塔)구역에 소재한 계단원은 827년 창건된 곳으로, 법화사상에 근간한 대승보살계단이 처음으로 설립된 일본불교사에서 중요한 장소로 손꼽힌다. 계단원이 창건되던 당시 일본 전국에서 출가자가 정식으로 수계를 받을 수 있던 곳은 나라의 토다이지를 비롯해 국가에서 세운 3곳의 계단뿐으로, 당시에는 〈사분율〉에 기반한 구족계가 이뤄지고 있었다.

엔랴쿠지의 개산조인 사이쵸 대사는 히에이잔을 거점으로 천태종을 양성하기 위해서, 또 소승의 〈사분율〉로는 대승의 정신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조정에 대승계단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사분율〉 계단의 강력한 반대에 번번히 수포로 돌아갔다.

끝내 천태종은 대사의 입적 7일 후 조정의 인가 하에 계단원을 건립했다. 이로써 천태종 독자의 수계와 출가자 양성이 가능해졌다. 히에이잔에서 수계를 받은 호넨, 신란, 도겐 등의 인물들로 인해 일본불교사에서 가마쿠라 신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의 기조를 불러일으키는 등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다.

현재의 계단원은 1517년 병화로 소실된 후 1678년 재건 된 것으로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내부는 돌로 포장된 바닥에 석가, 문수, 미륵의 삼존상을 수미단에 봉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연 1회 수계산림 시 수계자들에 한 해 출입이 허락되며 이로 인해 계단원은 천태종의 출가자라 하여도 평생 단 한 번 갈 수 있는 성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엔랴쿠지 측은 "종조이자 개산조인 사이쵸 대사의 원적 1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계단원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일반에 특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일본불교사의 중요한 사건을 장식함과 동시에 사이쵸 대사의 평생의 숙원이었던 장소를 공개함으로써 종도들의 신심을 고취하고 천태사상을 대중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된다.

또한 엔랴쿠지는 이와 함께 특별수계산림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계산림은 종단을 불문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기 바라는 대중들을 대상으로 천태종 종정이 전계아사리로 수계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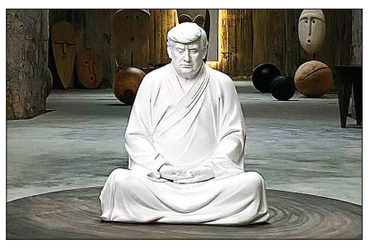
# 트럼프 미국 前 대통령 불상 화제

### 정치적 의도 없어, 세계적인 인기 구가

중국에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하는 트럼프 불상'이 화제다. 지난 3월 10일 영국 '가디언지', 미국 '뉴욕 타임즈' 등의 주요 외신들은 중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인 명상하는 트럼프 불상 소식을 전했다.

명상하는 트럼프 불상은 미 前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복을 입고 손은 선정인을 하여 조용히 명상에 잠긴 모습이다. 중국 남부의 한 가구 제조회사가 기획하여 판매중인 이 불상은 트럼프 前 대통령의 대선캠프 표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풍자한, '귀사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로 홍보되고 있다. 트럼프 불상을 소장함으로써 소장처를 다시 위대하게 해준다는 뜻이다.

불상을 제작한 홍진시(洪金世) 작가는 이 불상의 정식 작품명이 '서천의 심란한 부처(西天懂佛), 트럼프'라고 밝혔다. 홍 작가는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더 큰 성공과 명예를 원하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갈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이미지와 정반대의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자신이 제일 처음 만든 트럼프 불상을 트럼프 前 대통령에게 선물할 의사가 있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명상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불상. 사진출처=타오바오

현재 '타오바오'에서 판매중인 트럼프 불상은 16cm 높이의 소형 불상과 46cm 높이의 대형 버전으로 판매중이며 각각 999위안(한화 약 17만원), 3999위안 (한화 약 7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동국대 G미래&힐링 융복합 최고경영자 과정 〈제4기〉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Healing) + 인문 · 문화〉
대한민국 리더의 미래와 건강, 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화AMP 과정

| | |
|---|---|
| OT특강 | * 늙지 않는 비법 호르몬 관리, 명의 김세철 원장, 4월 20일, 희망자 사전 신청 후 특강 수업 참관 가능 |
| 수업 | * 매주 화(火)18:00~21:00 * 동국대 학명세미나실 * 입학식: 5월 11일 |
| | 0교시 18:00 ~ 18:30 석식 및 다과, 원우 특활<br>1교시 18:30 ~ 20:10 동서양 미래학, 자연 건강, 인문 문화 특강<br>2교시 20:20 ~ 21:00 자연건강, 힐링타임, 1주일의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

| | 미래학 | 동양미래예측학 | 자연건강 | 인문·문화 |
|---|---|---|---|---|
| 주제 | 미래경영과 4차 산업 혁명 | 때를 찾는 지혜 동양미래예측학 | Wellbeing Welldying | 인문학 |
| | 미래변화와 생존, 혁신전략 | 과학화된 역학(관상 주역) | 음식궁합 먹거리 | 법률 |
| | 미래전략 손에 잡히는 미래 | 부동산과 풍수 | 체질요법 힐링 명상 | 세무 |
| 자격 | 대기업 및 공기업 임원급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대표, 금융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고위인사,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 | | |

* 과정 원장 소재학 교수가 최초로 창시하고 개발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 90% 이상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동양미래예측학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통해 모든 원우들의 개인별 미래 흐름 분석 및 맞춤형 관리 (성공할 때, 물러날 때, 투자할 때, 건강 약해지는 시기 등)
* 특강 교수 : 태초 먹거리 학교 이계호 교수, 김중태 IT문화원장,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사기피해예방 임채원 부장검사, 엄창섭 고려의대 해부학교수,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부동산 투자 전문가 박관식 대표, 박경식 미래전략정책연구원 원장 외
* 홍보대사 : 원우 가수 장미화 회장, 코미디 협회 엄용수 회장, 뚝딱이 아빠 김종석 박사 외


원장 겸 총괄교수
소재학 총괄교수
미래예측학박사1호
•동양미래학자
•명리학자, 풍수지리학자
•동서양미래학 융복합학자
•국제뇌교육대학원 석좌교수
•캐롤라인대학교 부총장
•KOFS 한국동양미래학회 회장
•동국대 GFCA최고위과정 원장


이상희 전 장관
전 과기부장관, 국회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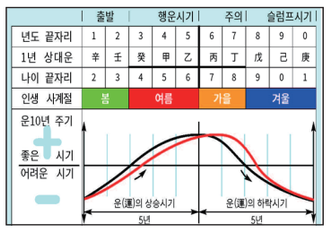

김홍신 교수
소설가, 전 국회의원


박영숙 대표
유엔미래포럼


김세철 교수
명지병원 의료원장

현대 사주명리학 공개특강
동국대 GFCA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12기〉 개강특강
3월 31일(水), 4월 7일(水)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왕초보도 제대로 된 사주명리학, 원리위주 가장 쉽게 공부하고 마스터하는 과정
평생 공부해도 답 안 나오는 사주학, 원리 위주 재미있게 OK!
성공 실패 시기, 창업 투자 시기, 때를 찾는 법 제대로 배우는 과정, 검증 가능한 제대로 된 작명법(성명학) 마스터
과학화된 역학, 논리로푸는 사주학, 동양미래예측학
마스터 교강사 및 명리진로적성상담자 자격증 과정 겸비




* 수업: 매주 水 18:30~21:00 초급, 중급, 고급 과정별 수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프로그램 활용 학습용이
* 예습 및 복습강의 영상제공
* 수료후 마스터까지 무료반복수강 가능

명당 찾는법 풍수지리 공개특강
동국대 GFCA 풍수지리 최고위과정 〈9기〉 개강특강
4월 12일(月), 4월 19일(月) 18:30, 공개특강 사전 신청순 30명

기(氣) 좋은 터 찾는 법, 원리 위주 강의,
왕초보도 1년에 제대로 된 맥을 잡는 과정
풍수지리,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인생을 보다 성공적이며 건강하게 해주는 자연과학. 교강사 및 풍수지리 지도사자격증 과정 겸비, 이론 따로 실제 따로 아닌, 원리 위주 재미있는 공부, 국내외 실전 기 풍수지리 현장 답사
* 수업: 매주 月 18:30~21:00 * 경제적인 등록금
* 강의 영상 제공 유튜브: 소재학교수의 때를 찾는 지혜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최고위과정



★ 소재학 총괄교수 동양미래예측학, 풍수지리 특별상담 진행 ★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CEO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 ☎ 02-585-0079 / 사주명리 풍수지리 전문가 최고위 사무국 ☎ 02-3443-4984, 010-8335-8001